



# 완주마을 이야기

완주마을 이야기 Since 2012 제164호



2026년 4월호

믿음으로 이어진 용진 양전마을

노란 유채꽃이 눈두렁을 물들이고 자폭련이 꽃봉오리를 터뜨리는 4월, 양전마을의 하루는 부지런히 시작된다. 이른 아침부터 마을을 돌보는 어르신들, 회관에 모여 나누는 밥과 웃음, 주막나무 묘목을 들여다보는 손길. 100년 넘은 교회 종소리가 울려 퍼지는 이곳에서 '믿음'은 사람과 사람 사이를 잇는 말이다.

관련 기사 2~7면

사진설명: 소나무 그림자가 드리워진 마을회관 앞에서 주민들이 웃고 있다.

- 소양동함들본사회적협동조합 창립 8P ● 삶의 풍경 원더레 할머니 이야기 10P
- 2026 농벨생기 1기 교육 현장 12P ● 박임순 어르신 백세잔치 15P

# 100년 교회 종소리 따라 나무와 사람이 함께 나이 드네

100년 넘게  
한 자리를 지키고 있는 양전교회



양 전 교 회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4:6)

대만예수교 장로회  
양 전 교 회

## 회돌아 마을 한 바퀴

### 어질고 기름진 땅, 양전(良田)

양전교회를 지나 마을 안쪽으로 발걸음을 옮기자 노란색과 파란색 조끼를 입은 어르신들이 눈에 들어왔다. 완주시니어클럽 소속 어르신들은 재 활용 봉투를 정리하고, 대한노인회 소속 어르신들은 마을 곳곳을 살피며 쓰레기를 수거했다. 부지런히 일을 끝낸 이형구 어르신께 마을 이름에 얽힌 옛이야기를 들었다.

원래 이 동네는 개울이 흘렀다고 해서 ‘오랜계골’이라 불렀다고 한다. 아주 옛날부터 그냥 그리 불린 이름이라 정확한 뜻은 아무도 모른다고 한다. “우리 친할머니가 얘기해 주셨는데, 옛날 이 동네 사셨던 분이 봉동 서당에서 공부해 과거에 합격하셨대. 경상도 영천으로 부임하셔서 ‘영천 어른’이라고 불렸지. 순종 임금 때 한양에서 벼슬일을 하다 부모상을 치르러 고향에 내려오셨는데, 그때 오랜계골보다 ‘양전’이라 부르는 게 낫겠다고 하셔서 그 뒤로 양전마을이 됐어.” ‘어질 양, 밭 전’. 이름처럼 기름지고 넉넉한 땅이라 그런지 이곳은 예전부터 논과 밭농사가 발달했다. 지금도 흔한 하우스 시설 없이 벼농사와 대파, 마늘 등 작물 재배가 이뤄진다.

### 회관에서 점심 먹고 대화 나누는 일상

다른 마을보다 유독 마을회관에 자주 모이는 것이 양전마을 사람들의 특징이다. 특별한 행사가 아니어도 11시쯤이면 하나둘 회관으로 발길이 향한다. 이날 점심상에는 윤영례 부녀회장의 비법 양념장으로 만든 매콤한 오리주물럭과 세발나물무침, 직접 담근 동치미와 김치가 올랐다.

신언순(85) 어르신은 “일 없으면 점심에 모여서 같이 밥 먹는 게 좋다”며 “혼자 있으면 적적한데 여기 오면 사람들 얼굴도 보고 이야기도 나눌 수 있어 좋다”고 말했다.

양전마을은 최근 완주군 ‘생생마을 만들기 사업’에 선정되면서 마을 곳곳에 꽃을 심고 경관을 가꾸는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과정은 행복플러스농장이 중심이 되어 이끌어가갈 예정이다. 여기에 어르신들을 위한 반찬 나눔과 이동이 불편한 주민들을 병원이나 목욕탕으로 모셔다 드리는 돌봄 활동도 함께 이뤄진다.

조중관 개발위원장은 “마을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모이고 어울리는 게 가장 큰 힘”이라며 “앞으로 꽃을 심고 환경을 가꾸는 일뿐만 아니라 어르신들이 편하게 지내실 수 있도록 돌봄과 나눔도



위에서부터\_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주민들, 마을회관에 모여 점심을 함께 나누고 있다. 밭에서 쪽파를 수확하고 있는 이영림 씨

계속 이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 산책길 속 펼쳐진 봄꽃과 나무 도감

식사를 마치고 밭을 살피러 나가는 최쌍원 어르신을 따라 마을 산책에 나섰다. 40년 넘게 관상수를 길러온 어르신은 걸음을 옮길 때마다 길가의 나무를 척척 알아맞혔다.

“저런 사철나무, 이건 산수유. 저기 자목련도 있네. 자목련은 원래 백목련보다 늦게 피어.”

마을 중심부의 작은 땅에는 남천, 주목나무, 호두나무, 매실나무가 알차게 자리잡고 있었다. 커다란 주목나무 옆으로는 그 가치를 꺾어다 심은듯한 작은 묘목이 자라고 있었다.

“저렇게 자라는 데 1년이 넘게 걸렸지. 주목나무는 느리게 자라는데, 그렇다고 방치만 하면 안돼. 계속 들여다보면서 나무한테 필요한 게 뭔지 생각해야지.”

쌍원 어르신도 집에서 제법 떨어진 밭에 대파와 양파를 기르고 있다. “우리집 대파는 두 쪽씩 붙어있는 거 없이 아주 잘 자랐다”며 웃은 어르신은 날이 더 따뜻해지면 손질해둔 생강을 심을 예정이다.

### 저마다의 방식으로 봄을 일구는 중

쌍원 어르신과 헤어진 후 독특한 분위기의 집 앞에서 발길이 멈췄다. 옥상에서 지붕을 손보고 있는 김태원 어르신이 보였다. 마을에서 ‘맥가이버’로 통하는 분이다.

“내일부터 비 온다고 해서 미리 고치고 있다”는 태원 어르신은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흥겨운 노래를 들으며 능숙하게 손을 놀렸다. 탄광 엔지니어, 공업사 수리 기술자를 거친 어르신은 직접 만든 도르래로 무거운 자재를 끌어올리고, 간이 승강장치로 지붕과 지면을 자유롭게 오갔다.

넓은 밭 한쪽에서는 이영림(65) 씨가 쪽파 사이에서 바쁘게 손을 놀리고 있었다. 영림 씨는 “쪽파는 한 곳에서 붙어 자라던 제대로 영글지 않는다. 이맘때 미리 솎아줘야 나머지가 실하게 자란다”고 설명했다. 바구니 가득 담긴 솎아낸 쪽파를 보니 두세 번으로 끝날 양이 아니다. 쪽파를 다 솎아내면 무성하게 자란 시금치를 켈 차례란다.

영림 씨는 밭농사뿐 아니라 남편과 잔디 농사도 2천 평 넘게 지어왔다. 이 마을에 시집오자마자 삼으로 잔디를 퍼담으러 다닌 것이 농사의 시작이었다. 기어다니는 아기를 잔디밭 한쪽에 앉혀두고 땀을 흘리던 시절도 있었다. 세 딸이 모두 커서 직장생활을 하는 지금, 그 시절을 떠올리는 얼굴엔 웃음이 번진다. 고된 농사일 속에서 쌓인 유쾌하고도 서린 사연들을 딸의 도움을 받아 다듬어 라디오 방송에 보낸 적도 있다고 했다. 그 사연이 소개돼 받은 상품권으로 온 가족이 보쌈을 먹었던 기억을 웃으며 꺼내는 그의 이야기를 듣느라 시간 가는 줄 몰랐다.

다시 마을 중심부로 돌아오자 고향에서 뿌리를 내린 젊은 얼굴이 보였다. 전철기 씨는 2020년부터 양전마을에서 식품제조가공업체 ‘철기식품’을 운영하고 있다. 직접 만경장에서 잡은 다슬기와 민물고기로 장조림, 진액, 국을 만들어 판매한다. 완주물에도 입점했다고 하니 양전마을의 맛이 더 많은 사람에게 닿을 날도 머지않았다. **☞**

‘행복플러스농장’ 조중관-신순자 부부

## 꽃 앓은 자리마다 사람 모이고

양전마을 초입, 개나리를 닮은 노란 간판 하나가 눈에 들어온다. ‘행복플러스농장.’ 투명한 온실 같은 이곳에선 원예 치유 프로그램이 열린다. 달가운 봄비 내리던 어느 아침, 노란 어린이집 차 한 대가 농장 앞에 멈춰 섰다. 아이들 스무 명 남짓이 조르르 내려 농장 안으로 들어선다. 넓게 펼친 돛자리 위, 선생님의 손길을 따라 어린 꽃을 화분에 옮겨 심는 시간이다.

### 40년 교단을 떠나 찾은 또 하나의 교실

온실 안은 사랑이 꽃이다. 프리플러와 다육이, 제철 꽃 화분이 층층이 늘어서 있고, 그 한가운데 아내 신순자(65) 씨가 초록 앞치마를 두르고 아이들 앞에 앉는다. 한 손엔 손인형을 끼우고, 다른 손엔 화분을 들어 보이며 설명하면 아이들 두 눈엔 호기심이 가득 떠오른다. 본격적으로 꽃을 옮겨 심는 시간. 교사리슨이 흙 속에 푹 파묻히는 동안, 온실 안은 아이들의 재잘거림과 푹푹한 흙내음, 꽃 향기로 가득 찬다.

행복플러스농장에선 관내 어린이집과 학교를 대상으로 원예 교육을 운영한다. 그 밖에도 허브를 직접 심고 차로 내려 마시며 향기 주머니를 만들어보는 ‘힐링 허브 정원’, 가족이 함께 작물을 수확해 간식을 만드는 ‘가족 텃밭 체험’, 어르신들의 인지 능력과 심리적 안정을 돕는 ‘노인 원예치유’ 등 다양한 대상을 아우르는 폭넓은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다.

그 전까지 부부는 전주에서 40년 가까이 교편을 잡았다. 아내 신순자 씨는 오래전부터 꽃을 좋아했다. 눈길 닿는 곳마다 두고 돌보았다. 먼저 교단에서 내려온 건 순자 씨였다. 초등학교 교장으로 퇴직한 뒤 본격적으로 원예 치유를 공부하기 시작했고, 지난해 8월 수학교사를 끝으로 교단을 떠난 중관(64) 씨도 그 길에 함께 들어섰다.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과 (사)한국원예치료복지협회가 주최하는 복지원에서 양성교육과정에 들어가, 1년 6개월 동안 강의와 실습, 논문 집필까지 모두 마친 끝에 복지원에서 2급 자격증을 취득했




조중관·신순자 부부. 부부는 전주에서 40년 가까이 교사로 일하다 퇴직해 남편의 고향인 양전마을로 옮겨와 농장을 운영하고 있다.

다. 여기에 원예심리상담사와 가족상담사, 실버 케어지도사 자격증까지 더해 나갔다.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다양한 사람들을 폭넓게 품을 수 있는 원예치유를 하기 위해서였다.

### 꽃으로 심은 모두의 사랑방

양전마을은 중관 씨의 고향. 농장이 들어선 자리는 원래 임대로 내놓던 빈집이었다. 한동안 사람이 살지 않아 흉가처럼 변한 곳을 허물고, 지금의 모습으로 꾸몄다. 허전하던 마을 초입에 꽃이 피어나니 참 보기 좋다고 주민들은 말한다. 중관 씨는 이곳이 마을의 모정처럼, 쉼터처럼 자리 잡길 바란다고 전한다.

“날이 꺾으면 농장 안에 모여 쉬어가기도 하고, 간식도 나눠 먹고, 그렇게 여럿 모이면 도란도란 이야기도 하고요. 어떤 분은 ‘커피라도 팔아라’고 하시는데(웃음), 지금처럼 누구든 편히 드나들어 보기만 해도 쉽고 위로를 얻을 수 있는 휴식 공간이 되면 좋겠어요.” 



관내 어린이집 아이들이 농장을 찾아와 꽃을 심고 있다.

## 손 닿는 곳엔 마음도 따르니

이석희 씨



부지런하고 지혜롭다고 마을에 소문 자자한 이석희 씨가 환하게 미소짓고 있다.

스물 넷에 양전마을로 시집온 이석희 씨는 농사를 지으며 편찮은 시부모를 지극정성으로 모셨다. 그 효심으로 시어머니는 아흔아홉 장수를 누리셨고, 석희 씨는 완주군 효부상도 받았다. 바쁜 살림 중에도 틈틈이 자격증을 따 어린이집 교사가 됐고, 예순에 퇴직한 뒤에도 아이돌봄 교사로 가정을 직접 방문하며 아이들 곁을 지키고 있다. 아이 한 명 한 명을 무엇이든 될 수 있는 귀한 존재로 여기기에 허투루 대할 수 없다는 책임감이 늘 따라다닌다.

그녀가 매일 아침 아이들을 배웅하며 건네는 말이 있다. “선생님이 해준 밥 든든히 먹었으니까 이제 무엇이든 잘할 수 있어.” 그렇게 용기를 심어준다. 교사로 일한 지 14년, 그동안 하루도 아이들 밥을 거르게 한 적이 없다는 것이 석희 씨의 가장 큰 보람이다. 만약 나중에 크거든 이석희, 선생님 이름 석 자만 기억해달라고, 그게 바람일 뿐이다.

그 넉넉한 마음은 어디서 왔을까. 물으면 석희 씨는 당신을 길러낸 어머니를 떠올린다. 부모님을 일찍 여의고, 언니와 오빠마저 출가하면서 동생 셋을 건사하며 가장 노릇을 했던 석희 씨. 그 고단한 어린 시절에 가슴 깊이 남은 건 어머니의 말씀이었다. 넉넉하지 않은 형편 속에서 어머니는 늘 배움

을 강조하셨다. “한 사람 뱃속에 보리밥이 들었는가, 어쨌든가 몰라도 배움에는 다 표가 나는 법”이라고 하시며, 그녀가 중학교에 진학하지 않으려 했을 때 설득해서 공부하게 하셨다.

“당시가 60년대인데, 그때만 해도 여자아이는 학교보단 일손 보태는 게 먼저였던 시절이에요. 당시 마을에서 중학교에 진학한 애들은 손에 꼽을 정도였는데, 제가 그 몇 안 되는 사람 중 하나였어요.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어머님이 정말 대단했고 감사한 일이죠.”

석희 씨는 여전히 늘 어머니의 가르침을 가슴속에 품고 살며 되새긴다. 동네 어르신이 길에서 짐을 드시면 달려가 손을 보태고, 도움을 받으면 꼭 무언가로 보답하고 온다. “마루라도 닦아주고 와라, 콩 것이라는 건 없다”던 어머니의 가르침 그대로다. 그래서인지 이 마을에서 석희 씨 이름 석 자는 다들 알아준다. 억척스러운 만큼 부지런하고, 지혜롭고, 살림 잘한다고.

오늘도 석희 씨는 어김없이 기도로 하루를 연다. 그 가지런한 손길이 아이들의 작은 등을 가만가만 토닥인다. 오래전 어머니의 가르침이 석희 씨에게로, 아이들에게로 흐른다. 손 닿는 데, 마음도 따라 간다.

## 원 없이 할 만치 다 한 것 같네

마을토박이 최쌍원 어르신



농사보다는 장사에 관심이 많아 서울, 전주, 익산 등을 돌며 세탁비누, 우유 등을 팔았다는 최쌍원 어르신

지난 7일 오전 양전마을 회관 앞에서 파란색 대한노인회 조끼를 입고 마을 환경정화 작업을 감독하던 최쌍원(89) 어르신을 만났다.

양전마을 토박이인 어르신은 대대로 농사짓던 집안에서 태어났지만 농사보다 장사에 더 관심이 많았다. 제대 후 보일러 설치기사로 일해보기도, 서울 상봉동에서 형제와 함께 세탁비누 공장을 운영하기도 했다.

“소기름을 끓여 잿물을 넣고 중화시켜서 잘 섞어야 성능이 좋은 비누가 돼. 내가 공장에서 직원들이랑 비누를 만들면 우리 형님이 그걸 트럭에 싣고 전국 팔도를 돌며 팔았지. 그때 참 바쁘게 살았어.”

서울에서 내려온 후에는 전주에서 두유 대리점을 크게 운영했고, 익산 이리에서도 우유 대리점을 열었다. 당시만 해도 대리점이라는 개념이 생소하던 시절이었으니 시대를 앞서가는 눈이 남달랐던 셈

이다. 이후 고향으로 완전히 돌아와 조정수와 관상수 사업에 전념했다. 새마을운동이 시작되던 무렵에는 새마을지도자를 겸하여 양전마을 이장으로서 9년 동안 마을의 변화를 이끌었다. 농촌진흥원에서 농사 교육을 받을 때도 실제 현장에서 겪은 경험이 있으니 처음 배우는 지식도 금방 이해할 수 있었다. 이론보다 실무, 책상보다 현장이 쌍원 어르신을 키운 스승이었다.

아흔을 바라보는 나이에 어르신의 눈빛과 목소리는 여전히 또렷하다. 지나온 세월 동안 거처온 수많은 직업과 경험이 지금의 그를 지탱하는 자부심이 되었다.

“살아보니까 세상에 쓸모없는 일은 하나도 없더라고. 이것저것 다 해봤으니까 어떤 일이든 할 수 있다는 자신이 있었지. 내 나이 이제 구순이 되는데 그동안 정말 원 없이 할 만치 다 한 것 같네.”



현관 앞을 지키는 소나무

용이 승천하듯 줄기와 가지의 곡선이 좌우 균형을 이루며 자란 소나무다. '곡간'이라 불리는 수형을 잡기 위해 영구 씨가 공을 아주 많이 들었다고 한다.



가장 오래 키운 소나무들

영구 씨가 정원을 가꾸면서 처음으로 데려온 소나무들로, 벌써 30년이 훌쩍 넘었다. 문을 열고 들어가면 바로 오른쪽에서 반겨 준다.



직접 지은 정자

지인들이 놀러오면 이 정자에 앉아 맛있는 음식을 나눠 먹고 정원 풍경을 감상한다.

취향이 담긴 장식품들

몸을 낮춰야 들여다볼 수 있는 자그마한 기와집, 나무뿌리 옆에 자리잡은 두꺼비 등 영구 씨의 취향이 담긴 장식품들이 여러 식물과 조화롭게 어우러져 있다.



## “땅 좋고 사람 좋은 양전 화합으로 더 아름답게 가꿔야지요”

### 이규원 이장

이규원(67) 이장은 용진읍에서 제법 큰 규모를 자랑하는 양전마을에 대한 자부심을 바탕으로, 주민 간의 소통과 마을 경관 개선을 위해 부지런히 일하고 있다.

#### 양전마을의 현황

현재 우리 마을에는 117세대 정도가 거주하고 있다. 아파트 단지 없이 자연적으로 형성된 부락 중에는 예나 지금이나 용진읍에서 제일 큰 마을이다. 규모가 큰 만큼 주민들이 많아서 마을의 활력이 대단하다.

#### 양전마을만의 특별한 자랑거리

마을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넓은 평지 지형에 땅이 좋기로 유명하다. 지금도 벼농사를 많이 짓고, 하우스 시설 없이 노지에서 대파, 양파, 생강, 마늘 등을 주력으로 재배한다. 또 하나 빼놓을 수 없는 것이 100년 넘는 양전교회다. 용진에서 가장 오래된 교회로, 주민 대부분이 교인이다 보니 과거엔 마을 사

람 대부분이 교회에서 예식을 올렸을 정도로 주민들의 삶과 깊게 맞닿아 있는 상징적인 곳이다.

#### 올해 ‘생생마을만들기 공모사업’에 선정되었다

전북특별자치도 주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5월부터 본격적인 사업을 시작한다. 현재 양전교회 도로변에 있는 낡은 펜스를 걷어내고, 그 자리에 돌담을 쌓거나 예쁜 꽃나무를 심어 아기자기한 마을 경관을 조성할 계획이다. 우리 마을에서 원예농장을 운영하는 주민분들이 주축이 되어 전문성을 살려 진행할 예정이라 기대가 크다.

#### 이장으로서 바라는 마을의 모습

이장을 맡기 전부터 늘 ‘화합’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다. 어르신들과 젊은 세대가 대화를 통해 서로 공감해야 갈등이 없다. 혹여 갈등이 생기면 언제든 나서서 적극적으로 중재할 생각이다. 우리 양전마을이 앞으로도 서로 이해하고 베푸는, 정이 넘치는 마을이 되길 바란다.



생생마을만들기 공모사업 진행의 주축인 이규원 이장(왼쪽), 조중관 개발위원장(오른쪽)이 수양산을 배경으로 서 있다.

## “교회를 중심으로 한결같이 서로를 보듬고 살아”

### 윤영례 부녀회장

양전마을로 들어오는 길 왼편에 자리한 양전교회는 1920년에 세워져 1922년 10월경 봉동 봉상교회에서 분립해 2020년에는 100주년을 맞이했다. 일제강점기와 전쟁의 풍파 속에서도 양전마을 사람들의 안식처가 되어준 교회는 지금도 주민들의 삶과 신앙이 얽혀 있는 구심점이다.

“우리 마을은 양전교회를 중심으로 형성된 신앙촌이나 다름없지. 새로 들어온 분들 말고는 주민의 90%가 여전히 교회에 다니며 서로를 보듬고 살아.” 마을회관에서 점심 준비를 하던 윤영례(76) 부녀회장이 미소 띤 얼굴로 마을 얘기를 꺼냈다. 신실한 교인이기도 한 그는 매수 수요일 예배를 거르지 않는 것은 물론, 반찬 나눔 등 마을 봉사에도 앞장서고 있

다. 이날도 교회 장로님께 얻었다는 싱싱한 세발나물을 한 보따리 챙겨와 주민들과 함께 나눔 점심 반찬을 정성스레 무쳤다.

영례 어르신의 기억 속 양전마을은 예나 지금이나 ‘정이 넘치는 곳’이다. 옛날부터 단합력이 좋았고, 이제 대규모 행사는 줄었어도 주민들은 여전히 회관에 모여 같이 점심 먹는 게 일상이다. 누구는 양념을, 누구는 직접 농사지은 채소를 가지고 나와 밥상을 채운다.

윤영례 부녀회장은 “세상이 아무리 어지러워도 우리 마을 사람들이 이렇게 정이 많다. 앞으로도 서로 나누고 안부를 물으며 이웃사랑이 이어지길 바란다”고 웃었다. ☺



마을 주민들과 함께 먹을 점심을 준비하는 윤영례 부녀회장

## 왜 매년 인구가 120명씩 줄어드나? "이 질문에서 **소통사업**이 시작됐죠"

소양통합돌봄사회적협동조합 활동 시작합니다!



지난 3월 24일 소양면행정복지센터에서 열린 소양통합돌봄사회적협동조합 창립총회 참석자들이 성공적인 운영을 다짐하고 있다.

지난 3월 24일, 소양면행정복지센터에서 소양통합돌봄사회적협동조합(이하 소통사업)의 창립총회가 열렸다.

이날 총회에는 완주군청 관계자와 사회적협동조합 완주사회적경제네트워크(이하 완사넷), 소양면장을 비롯한 각 기관장, 이장협의회장, 주민자치위원장, 부녀연합회장 등 소통사업에 관심을 가진 많은 사람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소통사업은 정관 제정과 임원 선출, 사업 계획 및 예산 승인을 마치고, '소양면 주민들의 삶의 질 제고'라는 목표 아래 힘찬 첫걸음을 내디뎠다.

### 주민들이 직접 찾은 인구 감소 문제의 해답

소통사업은 소양면을 사랑하는 주민 5명이 모여 "왜 소양의 인구가 매년 120여 명씩 줄어드는가?"라는 질문을 함께 붙들면서 시작됐다. 30년 전 소양면에 귀촌한 허영식(71) 이사장은 "외부에서 온 사람으로서 소양은 정말 살기 좋은 곳인데, 왜 자꾸 사람들이 떠나는지 안타까웠다"고 말했다.

처음 머리를 맞댄 5명은 뜻을 같이할 사람들을 한 명씩 데려오며 발기인을 늘려나갔고, 2025년 9월 완사넷의 컨설팅을 통해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을 공식 결의했다. 7~8개월의 준비 기간을 거쳐 창립한 이후에도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 토론을 통해 사업 세부 계획을 다듬





소양통합돌봄사회적협동조합 정기토론회  
사진제공\_완주사회적경제네트워크

고 있다.

정병현(66) 홍보이사는 “사회적협동조합은 정부 인가를 받아야 하는 만큼 준비할 서류가 많았는데, 완주사회적경제네트워크의 도움이 없었다면 여기까지 오는 데 어려웠을 것”이라며 감사함을 전했다.

현재 허영식 이사장을 중심으로 이사·감사 등 임원진 13명, 소양면 전체 47개 마을에서 일반 조합원 45명이 함께하고 있다.

**먹거리·건강·주거 챙기는 소양 맞춤형 통합돌봄**

소통사협은 현재 농림축산식품부 인가를 준비 중이며, 올해 6월 말 정식 인가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인가 이후 하반기에는 조합원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고, 실천하기 쉬운 사업부터 실시할 예정이다. 소양면의 취약한 부분과 부족한 부분을 짚어가며 계획을 세웠는데, 아동·노인복지처럼 기존 기관 및 단체가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분야보다는 특정 계층에 한정되지 않는 보편복지에 집중하기로 했다. 반곡마을 이장이기도 한 허영식 이사장이 마을을 직접 살피며 몸소 체감한 주민들의 의견도 사업계획 곳곳에 반영됐다.

이렇게 만들어진 사업은 주민 생활 전반을 아우른다. 먹거리·건강·주거를 포함한 통합돌봄 서비스를 중심으로, 공동급식소 운영, 교육·문화 서비스, 스포츠 및 건강증진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공동급식소의 첫 단계로는 학생, 청년, 어르신 누구나 찾아와 라면을 직접 끓여 먹을 수 있는 ‘라면 무료 급식소’를 구상 중이다. 특정 대상에게 일방적으로 제공하는 방식이 아닌, 원하는 사람들이 편하게 드나들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것이 목표다. 주거 측면에서는 전구 교체, 싱크대나 문턱 수리 등 집수리 기술을 가진 주민들이 팀을 이뤄 신청 가구를 직접 방문하는 사업을 계획하고 있다. 또한 저녁 7시 이후에는 영업하는 상가가 없어서 깜깜해지는 소양면의 거리 분위기를 바꾸고자 저녁 시간대 소규모 영화 상영과 당구장, 기원 등 휴게시설 활성화도 계획하고 있다. 사업 재원은 정부공모사업 및 햇빛소득마을 태양광 발전사업의 수익을 재투자하는 방식으로 마련할 예정이다.

**촉촉한 관계망으로 일구는 자립과 활기찬 소양**

소통사협은 사업의 뿌리를 지역 내 협력에서 찾고 있다. 행정복지센터, 파출소, 보건지소 등 기관과 주민자치위원회, 이장협의회, 부녀회, 지사협, 농협, 신용협동조합 등 각 단체와 협약을 추진하며 통합돌봄을 위한 기반을 다질 계획이다. 한편 13명의 이사진과 조합원이 직접 출자금을 내는 등 재정적 자립을 위한 노력도 기울이고 있다.

정식 인가 이후에는 소양면 마을마다 직접 찾아가 조합과 사업 내용을 알릴 계획이다. 정병현 홍보이사는 “소통사협이 소양면에서 어떤 일을 할 것인지, 그 일이 주민들의 삶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관심 있는 더 많은 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길 바란다”며 소양면 주민들의 참여를 당부했다.

이어 허영식 이사장은 “소양면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첫출발이다. 뜻을 함께하는 분들이 더해진다면 누구나 정착하고 살기 좋은 소양면이 될 것이 확실하다”며 “앞으로 어려운 일이 많겠지만 항상 최선을 다해 주민들에게 사랑받는 조합이 되겠다고 다짐했다.”



소양통합돌봄사회적협동조합 조합원들.  
왼쪽부터 정병현 홍보이사, 허영식 이사장, 정은실, 정봉숙, 이순남 조합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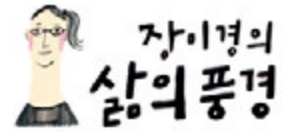
“통합돌봄서비스가 중심  
공동급식소 운영 등  
보편복지에 집중”

허영식 이사장





“이 손이  
내 훈장이야”



장미경의  
삶의 풍경

동상면 신사봉마을 원덕레 할머니 이야기

‘건곤드래, 멜라추, 토종밤, 냉이, 감빼지, 깎파, 호박고지, 쪽감, 고사리, 건취나물...’

사계절을 정성스럽게 들여다보고 거뒀을 작물들의 이름이 할머니의 수첩에 적혀있었다. 키우는 정성 못지않게 한 획 한 획 꼭꼭 눌러쓴 이름들이다.

“공부를 못해서 글씨를 쓸 줄도 몰라. 그래도 내가 농사짓는 것은 쓸 줄 알아.”

“할머니 감빼지는 뭐예요?”

“안 그래도 젊은 사람들이 자꾸 물어보데? 감 썰어서 말린 거. 감말랭이여. 우리는 감빼지라고 불러(웃음).”

동상면 연석산 아래, 사방이 산으로 둘러싸인 신사봉마을. 원덕레(1937년생) 할머니댁의 마당은 지금도 현역 농사꾼의 삶이 이어지는 일터다. 약재로 쓰이는 오갈피나무를 잘게 쪼개 별 좋은 마당에 널어 말리고 겨우내 맛이 들어찬 무는 썰어서 무말랭이를 할 참이다.

원덕레 할머니는 2012년 완주로컬푸드가 처음 시작될 때부터 참여해 온 소농이다. 동상면에서 활동하는 ‘로컬푸드 할머니 삼총사’로 알려졌으며, 2017년에는 완주문화재단이 주관한 ‘예술농부’ 사업에 참여했다. 호미 하나로 밭을 일구며 살아온 그의 삶은 사진과 글, 영상으로 기록되었다. 그로부터 10년 가까이 흐른 지금 할머니는 아흔이 되셨고 여전히 씨앗을 심고 키워서 거뒀을 일을 이어 나가고 있다. 그저 놀라울 뿐이다.

“평생 농사짓던 땅이 묵어있는 것도 괴롭고 풀이 나서 매야 하는데 그것도 안 하면 괴롭고 눈으로 안 보면 모르겠는데 보이는데 안 하면 오히려 괴롭지. 몸이 힘들어도 해야지. 처음에 로컬푸드 생길 때 직원들이 마을에 와서 허물없이 지냈어. 지금도 생각나고 보고 싶네. 같이 시간 보내면서 작물 포장하는 법, 어떤 작물이 잘 팔리는지도 다 알려주고 그랬지. 그때가 참 좋았어. 시금치,



상추 이런 것도 잘 팔리고, 그때는 조합원이 많지 않았으니 작물 내놨다 하면 다 팔렸지. 시골 공기 좋은 곳에서 자란 작물들이니 도시 사람들이 좋다고 사가고 통장에 돈 들어오면 참 좋았지. 지금까지도 하고 있지만 내가 바라는 것은, 내가 좀 젊었으면 좋겠어. 지금은 농사 노하우도 생기고 기반도 다 잡혔지. 처음에는 푸성거리 조금씩 했는데 지금은 아로니아도 심고 고사리도 심고 밤나무도 심고 팔 것 천지인데 그 사이, 내 몸이 늙어버렸네. 젊었을 때 이런 기반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래도 나는 지금도 내가 번 돈으로 살아. 나는 양로당 회장이기도 하거든. 그러니까 회의하러 종종 밖으로 나가지. 로컬푸드 회의, 양로당 회장들 회의도 가고, 이렇게 늙어도 인사치레할 곳도 많아. 손주들 오면 용돈도 주고, 내가 버는 거야. 그게 좋아. 내 힘으로 사는 것. 일은 대간하게 했어도 후회는 없어.”

할머니는 여전히 자신의 힘으로 삶을 이어가고 있다. 밭일과 마을 일 사이에서 그의 하루는 지금도 분주하게 흐른다.

두어 평 남짓한 방은 휴식 공간이자 작업실이다. 밭에서 거둬들인 작물을 비닐에 소포장하는 작업을 마치면, 일주일에 두 번 마을로 찾아오는 로컬푸드 기사에게 납품한다. 작물 출하 송장에 적힌 할머니의 글씨를 가만히 바라보고 있으면, 노란 리어카를 끌고 종종걸음으로 밭과 밭 사이를 오갔을 발걸음과 땅을 두드리는 호미 소리가 들려오는 듯하다.

방 한쪽 벽에는 할머니가 낳아 키운 일곱 남매의 어린 시절 사진이 걸려 있다. 아이들이 자라 각자의 가정을 이루고, 또 아이를 낳고, 그 아이들이 자라 다시 아기를 낳기까지의 시간도 사진 속에 함께 담겨 있다. 할머니는 농사일을 마치고 쉬는 시간에 가만히 앉아 벽에 걸린 사진들을 바

라본다. 한 번 천천히 훑어보고 나면 외롭던 마음도 이내 가신다고 한다. 명절에 온 가족이 모이면 손주들은 할머니 집 벽의 좋은 자리를 차지 하려는 듯 저마다의 가족사진을 걸어둔다.

자신이 배우지 못했던 것이 늘 마음에 남아, 자식들만큼은 꼭 공부시키고 싶었다고 한다. 밤터재를 넘어 전주로 유학을 보내 키웠고, 아이들은 모두 제 몫을 하며 잘 자라주었다. 대학원까지 마친 막내아들 덕에, 학교는 다니지 못했어도 박사모를 한 번 써 보았다고 할머니는 뿌듯하게 말한다. 이제 큰딸도 벌써 일흔이 되었다.

사진 속 울망졸망한 일곱 남매 옆에서 있는 마흔 살 무렵의 원덕례 할머니에게 자꾸 눈이 간다. 밤낮없이 농사일을 하느라 마르고 지친 모습이다.

“지금 생각해보니 저 때가 좋았는데, 저 당시는 먹고 사느라 좋은 줄도 모르고 살았지. 19살에 소양서 시집와서 이 터에서 여지껏 살고 있네. 그사이 집은 몇 번 갈아서 지었지만 터는 그대로야. 세월이 지나면서 낡으니까 나무 뜯어내고 우리 아저씨가 시멘트 블록으로 다시 지었지. 그 뒤에 옷퐁이 세니까 우리 아들이 걸을 조립식으로 짝 덧댔지. 세 번에 걸쳐서 집이 고쳐진 거야. 처음 집 고칠 때 우리 아저씨가 부엌을 신식으로 지어줬어. 이 마을에서 처음으로 부엌에 싱크대 놓은 집이 우리 집이야. 이 집에서 시어머니가 아기 받아줘서 7남매 낳고 키웠어. 그때는 이 근방에 사람이 겁나게 많았어. 지금은 허술하지만 나 시집왔을 때는 학교에 애들이 육신육신 많았어. 그러니 길가에 술집이 세 군데나 있고 동네 남자들이 술 먹느라 집을 안 들어와. 그러면 집집마다 애들 시켜서 아버지 모시고 오라고 난리였지. 그렇게 먹고 와서는 집으로 들어오면 애들 시켜서 주전자에 술 받아오라고 해서 또 마시고

번번	품목	내역	단위	수량	단가	총액	비고
1	리코트래 5			30개	2200	66000	
2				12개	23100	277200	2
3	다발라주 200			12개	23100	277200	6
4				19	23200	440800	0
5	밤	1480					
6	밤	200					
7	김대삼남이	500		47개	11000	517000	
8				19개	11000	209000	
9	김대삼남이	200					



위부터\_ 신사봉마을에서 처음으로 들여놓은 할머니의 신식 주방, 할머니가 직접 쓴 로컬푸드직매장에 물건을 납품한 출하송장, 일본에서 살던 아주버님이 방문했을 당시 찍어준 사진. 맨 오른쪽에 선 이가 돌아가신 남편 최재욱, 그 옆이 젊은 날의 원덕례 할머니

그랬지. 그래도 우리 신랑이 일을 잘해서 장작 떨어질 일 없이 쟁여놓았지. 억척스럽게 일을 잘했어. 쌀농사, 담배 농사짓고 가을에는 콧감으로 돈 벌고. 좋은 세상 더 살다 가지 막둥이 대학원 입학하는 거 보고 환갑 지나 예순 네살에 돌아가셨지.”

할머니는 자신이 자가용이 4대나 있다고 자랑하신다. 무릎 아픈 어머니 생각해 아들이 사다 준 세발자전거, 딸이 사다 준 전동차, 농협에서 제공한 보행기, 그리고 노란색 리어카. 집에서 멀리 떨어진 밤나무밭에 갈 때는 전동차를 타고 가지만 아무래도 자주 끌고 다니는 자가용은 리어카다. 리어카를 의지해 보행기 삼아 끌고 다니며 행하는 곳은 늘 밭이다.

“이렇게 로컬푸드 농사지으면서 사진도 찍히고 표창장도 받고 그러니까 좋은가 어쩐가 하다가도 그냥 ‘내가 잘 살은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 ‘고생은 했어도 올바르게 살았나보다’ 그런 생각이 들지. 나는 내가 일하는 것이 좋아. 자식들 먹이고 입히고 가르쳐야 한다는 마음으로 평생 일한 거야. 후회는 없어. 우리 딸이 내 손을 보더니, 농담한다고 엄마 추접스러워서 어디 손을 못 내놓겠네, 그 소리를 하길래 야! 야! 이 손이 내 훈장이다 큰소리쳤지. 이게 내 훈장이다 뭣이 추접시러!”

글·사진=장미경 장미경은 다큐멘터리 감독이자 고산미소시장에서 공동체가 만든 제품을 파는 편집매장 흥흥을 운영한다.

‘농부에게 필요한 생활기술학교’ 2026년 1기

# 7일의 기적, 내 손으로 수리하는 기쁨

꽃망울이 막 수줍게 고개를 내밀기 시작하던 지난 3월 22일, 완주의 공기는 유독 활기찼습니다. ‘농부에게 필요한 생활기술학교(이하 농필생기)’의 2026년도 1기 여정이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뚝손도 7일이면 기술자가 된다”라는 과감한 약속으로 문을 연 이번 교육은, 실습 시간을 늘리고 내용을 보강하여 그 어느 때보다 깊이 있게 진행되었습니다.

글 박용범(전환기술협동조합 이사장)

**제주에서 완주까지, ‘자립’을 꿈꾸는 이들이 모이다**

경남 산청, 대구, 서울, 부산, 수원, 과천, 그리고 멀리 제주까지. 전국 각지에서 참가자들이 모였고, 가까운 전주와 익산에서도 오고, 완주에서도 2분이 함께해주셨습니다. 이 작은 교육장이 전국을 잇는 배움의 현장이 되었습니다.

특히 인상 깊은 것은 참가자의 절반이 여성이라는 점입니다. 해마다 조금씩 늘던 여성 비율이 이제는 확연한 흐름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는 ‘생활기술’이 더 이상 특정 성별이나 연령의 전유물이 아니며, 누구나 스스로 삶을 꾸려가고자 하는 ‘자립의 본능’이, 농필생기가 지향해온 ‘자립하는 생활기술’이 점점 더 설득력을 얻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AI 시대, 왜 우리는 다시 ‘연장’을 잡는가**

인공지능이 많은 일을 대신하는 시대지만, 용접·배관·전기·목공과 같은 기술은 로봇이 대체하기 가장 어려운 영역이라고 합니다. 인간 특유의 섬세한 감각과 현장의 변수를 판단하는 힘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곳을 찾는 이유는 단지 기술적인 전망 때문만은 아닙니다. 삶의 많은 부분을 외주에 맡기며 느꼈던 소외감을 극복하고, 내 삶의 주권을 되찾고 싶기 때문일 것입니다. 특히 시골살이에서 배관이 터지거나 전기가 나가는 일은 ‘낭만’이 아닌 ‘생존’의 문제입니다. 기술자를 기다리는 수고와 비용을 덜고, 내 손으로 직접 고칠 때 얻는 희열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자신감이 됩니다.

**‘시연’은 없다, 오직 ‘실전’으로 증명하는 시간**

농필생기의 교육은 단순히 눈으로 보고 끝나는 ‘시연’에 그치지 않습니다. 모든 교육생이 직접 과제를 수행해야 수료할 수 있는 철저한 실전형 교육입니다. 첫날 배운 매듭법을 마지막 날 시험까지 치르며 몸에 새기는 이유도, 기술은 머리가 아닌 손 끝에서 완성

되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안전’은 농필생기가 가장 공들이는 부분입니다. 숙련된 강사들이 교육생 4~5명당 한 명씩 밀착 지도하며 사고를 철저히 예방합니다.

예를 들어, 충전드릴로 나사를 박을 때 장갑을 벗는 이유를 아시나요? 회전하는 나사산이 장갑을 말아들여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작은 습관 하나가 사고를 막고 진짜 기술자의 기본임을 배웁니다.

참가자들은 일주일간 드릴과 절단기, 용접기를 손에 익히며 수납함과 스톨을 제작하고, 분전함 조립과 배관 작업을 완수해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이들은 하나같이 입을 모았습니다. “이제, 나도 할 수 있겠다!” 


"스스로 만들어보는 경험을 통해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다양한 사람들과 함께한 시간도 정말 소중했습니다."

현우연(33세, 수원시 거주)

"어렵게만 느껴졌던 기술들을 정말 쉽게 알려주셨어요. 내 삶을 더 능동적으로 만들어갈 바탕이 된 시간이었습니다."

김보전(40세, 완주군 거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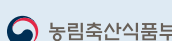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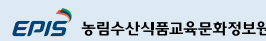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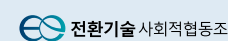
## 당신의 삶을 바꿀 7일, 지금 시작하세요.



2025년 농림수산물교육문화정보원과 귀농귀촌종합센터 우수 교육과정 선정, 교육생들의 **강사 만족도 99.3점**. 이 기록들은 농필생기가 이미 검증된 최고의 배움터임을 말해줍니다.

귀농·귀촌을 준비하시나요?  
아니면 내 삶을 내 손으로 조금 더 멋지게 바꿔가고 싶으신가요?  
**7일 뒤, 금손으로 거듭날 당신을 기다립니다.**

- **교육 신청:** 귀농귀촌 종합센터 ‘그린대로(greendaero.go.kr)’
- **검색 방법:** 검색창에 “농부에게 필요한 생활기술”(띄어쓰기 필수!) 입력
- **다음 일정:** 3기 - 5월 1일 시작 / 4기 - 6월 5일 시작



동손도  
7일이면  
기술자가 된다!



## 심심한 완주 여기로 모이자!



봄의 따뜻한 기운이 가득한 4월, 완주군 곳곳에서 다양한 소식과 프로그램이 이어진다. 일상에 활력을 더해줄 행사와 프로그램 일정을 함께 살펴보자. 상기 일정은 필요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참여 신청은 각 프로그램 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번 달 완주에서 즐길 거리 여기서 확인해 보자.

### 고산 청년거점공간 '청춘 방앗간'

#### 고산살롱: 보드게임 편

보드게임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여 함께 게임을 즐기는 시간이 다. 혼자서는 하기 어려운 다양한 보드게임을 방앗간 모임을 통해 함께하자!

**진행정보:** 4월 23일(목) 오후 7시~9시

#### 방앗간 밥상

좋아하는 음식을 가져와 함께 나누는 시간은 사람과 사람이 더 가깝게 이어준다. 서로의 음식을 맛보고 이야기를 나누며 취향을 공유하는 이 모임은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즐겁게 어울릴 수 있다. 관심 있는 사람은 아래 정보를 참고해 참여하면 된다.

**진행정보:** 4월 30일(목) 오후 7시~9시

**준비물:** 1인 1~1.5인분 음식

**주소:** 완주군 고산면 고산로 100 김갑천국 2층

**문의:** 063-262-2800

**운영시간:** 매주 화~토 오후 1시~9시 (일, 월, 공휴일 휴무)

**인스타그램:** @wjyc\_official

**참가신청:** linktr.ee/wjyc148 ▶ 양식 작성 후 제출

### 삼례 청년문화공간 '완충지대'

#### 나만의 앨범 만들기

'나만의 앨범 만들기'는 자신의 이야기를 가사로 풀어내고, 하나의 앨범으로 완성해보는 시간이다. 음악을 통해 감정을 표현하고 나만의 색깔을 담은 결과물을 만들어보며 특별한 경험을 할 수 있다.

**진행정보:** 4월 25일(토) 오후 2시

**신청방법:** 정원 마감까지 \*선착순 접수

#### 영화 읽기

매달 한 편의 영화를 함께 보고 이야기를 나누는 '영화 읽기' 모임은 작품을 다양한 시선으로 바라보는 시간이다. 이번 상영작은 '키리시마가 동아리 활동 그만둔대'로, 영화를 함께 감상한 뒤 각자의 생각과 느낌을 자유롭게 나눈다.

**진행정보:** 4월 23일(목) 오후 7시

**신청방법:** 정원 마감까지

**모집인원:** 8명

#### 청년 살롱

차 한 잔과 함께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는 '청년 살롱'은 서로의 취미를 나누고 이야기를 나누는 모임이다.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티타임을 즐기며 나만의 취미를 자랑하고, 서로의 관심사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져본다.

**진행정보:** 4월 30일(목) 오후 7시

**신청방법:** 정원 마감까지 \*선착순 접수

**모집인원:** 8명

**주소:** 완주군 삼례읍 삼례로 382 (신아빌딩 4층)

**문의:** 070-4113-7770

**운영시간:** 매주 화~토 오후 1시~9시 (일, 월, 공휴일 휴무)

**인스타그램:** @wjyc\_official

**참가신청:** linktr.ee/wjyc148 ▶ 양식 작성 후 제출

### 이서 청년거점공간 '이서나루'

#### 퍼스널 눈썹 디자인

'퍼스널 눈썹 디자인' 프로그램은 개인의 얼굴형과 이미지에 맞는 눈썹 스타일을 찾아보는 시간이다. 전문가의 안내를 통해 자신에게 가장 잘 어울리는 눈썹을 알아보고,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팁도 함께 배워본다.

**진행정보:** 4월 25일(토) 오후 1시 30분~2시 30분

**신청방법:** 정원 마감까지 \*선착순 접수

**모집인원:** 10명

#### 모여서 각자 집중하기

'모여서 각자 집중하기'는 같은 공간에서 각자 자신의 일을 하며 집중력을 높이는 모임이다. 서로의 존재만으로 동기부여를 얻고, 효율적으로 시간을 활용해보고 싶은 사람들에게 추천한다.

**진행정보:** 4월 30일(목) 오후 7시~9시

**신청방법:** 정원 마감까지 \*선착순 접수

**모집인원:** 5명

#### 비밀 교환 독서 메이트

서로의 책을 바꾸어 읽고 생각을 나누는 특별한 독서 모임이다. 익명으로 진행되어 더욱 자유롭게 감상을 공유할 수 있으며, 새로운 시선과 취향을 발견하는 시간을 가져본다.

**진행정보:** 4월 23일(목) 오후 7시 30분~8시 30분

**신청방법:** 정원 마감까지 \*선착순 접수

**모집인원:** 6명

**주소:** 완주군 이서면 갈산로 40 공취팔쭈도서관 5층

**문의:** 063-229-3230

**운영시간:** 매주 화~토 오후 1시~9시 (일, 월, 공휴일 휴무)

**인스타그램:** @wjyc\_official

**참가신청:** linktr.ee/wjyc148 ▶ 양식 작성 후 제출

### 참작과 공유, 소통의 공간 '완주미디어센터'

#### "2026생애사 기록학교 교육생 모집"

완주미디어센터에서 사람과 마을의 이야기를 영상으로 기록하는 '생애사 기록학교'는 나만의 시선으로 세상에 하나뿐인 기록물을 만들어보는 과정이다. 4월 16일부터 5월 28일까지 매주 목요일 오후 6시 30분부터 8시 30분까지 총 6회에 걸쳐 완주미디어센터 일반강좌실에서 진행되며, 영상 촬영과 편집 경험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영상제작 중급교육이다. 수강료는 2만 원이며, 지역의 이야기를 깊이 있게 담아내고 싶은 이들에게 적합하다. 관심 있는 사람은 완주미디어센터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 "꽃이 만개하는 4월, 시골극장 콩씨네와 함께"

시골극장 콩씨네 4월 상영 시간표를 공개한다. 온 가족이 즐거운 <토요 극장>과 영화를 깊이 있게 해 줄 <저녁극장>이 상영될 예정이다.

#### \* 온 가족이 즐거운 <토요 극장>

상영일	제목	장르	관람가
4월 18일(토) 오후 2시	류이치 사카모토:코다	다큐멘터리	전체 관람가
4월 25일(토) 오후 2시	내 사랑	드라마	전체 관람가

#### \* 영화를 깊이 있게 <저녁극장>

상영일	제목	장르	관람가
4월 28일(화) 오후 7시	집시의 시간	드라마	청소년 관람 불가

**문의:** 063-262-1895

**주소:** 완주군 고산면 고산로 70-10

**운영시간:** 오전 10시~오후 6시(점심시간 오후 12시~1시)



### 함께 만들어가는 완주군 마을환경교육



완주사회적경제네트워크는 3월 4일부터 4월 8일까지 매주 수요일 소양면 상생복지센터에서 '환경반장 양성교육'을 진행했다. 총 6회차로 운영된 이번 교육은 환경 보호의 필요성과 환경반장의 역할을 중심으로 ▲농촌 쓰레기 문제 ▲분리배출 및 재활용 방법 등을 다뤘으며, 주민이 스스로 환경문제를 해결하고 실천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논의했다.

또한 기존 환경반장과 신규 참여자들이 겪는 어려움을 공유하고, 보다 쉽게 전달할 수 있는 교육 방식도 모색했다. 특히 소양면 환경미화팀과의 협의를 통해 실제 쓰레기 처리 과정의 문제점도 짚었다. 앞으로 소양면 환경반장은 2인 1조로 마을을 방문하여, 기본적인 환경교육과 소양면에 맞는 분리배출에 대한 교육을 진행한다. 또한 완주마을공동체사회적협동조합과 협업하여 소양면 외 다른 마을도 방문하여 환경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현재 완주마을공동체사회적협동조합은 완주군 전체 주민을 대상으로 역량강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완주지구인 소양면, 화산면, 운주면에서는 환경반장 양성 교육뿐만 아니라 마을돌봄활동, 주민소모임 등 다양한 활동으로 주민 스스로 만들어가는 통합돌봄을 진행하고 있다.



### 운주 안심마을 박임순 어르신 100세 잔치

## “건강하세요!” 온 마을과 가족이 함께 축복


지난 3월 28일 운주면 안심마을에서 열린 박임순(100) 어르신 백세를 축하하는 잔치에 주민들이 한마음으로 모였다. 이번 잔치는 마을의 큰 어른인 박임순 어르신의 건강과 장수를 기원하며 마련된 자리로, 어르신 댁부터 안심길 322-9 일원까지 이어지며 따뜻한 분위기 속에 진행됐다. 한 세기를 살아온 어르신을 향한 축하와 감사의 마음이 더해지며 의미를 더했다.

정성껏 준비한 시루떡과 제철 과일, 고기 수육과 새우구이 등 먹음직스러운 음식이 상을 가득 채웠다. 여기에 색소폰 연주가 더해지며 잔치 분위기를 한층 끌어올렸고, 주민들은 웃음과 덕담을 나누며 흥겹게 어울렸다. 화환과 봉투 대신 가벼운 발걸음으로 함께한 자리인 만큼 더욱 정감 있는 시간이 이어졌다.

안심마을은 주민이 함께하는 공동체 행사를 꾸준히 이어오

고 있다. 이번 잔치 역시 마을운영위원들과 상의해 추진됐으며, 주민들의 재능기부와 찬조가 더해져 볼거리와 정이 넘치는 자리로 꾸며졌다. 어르신들은 물론, 꽃다발을 들고 찾아온 자녀들까지 함께 어울리며 잔치를 즐겼다.

특히 안심마을은 외지에서 온 귀촌인 비중이 높은 마을로 원주민과 자연스럽게 어울리며 행사 기획과 참여에도 적극적인 분위기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에 이어 이번 잔치 역시 타지에 거주하는 마을 출신 주민들까지 함께 초청해 모두가 어울리는 자리로 마련됐다.

올해로 안심마을 이장 8년 차를 맡고 있는 한상일 이장은 “우리 마을의 큰 어른이신 박임순 어머님께서 백세를 맞이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며 “앞으로도 어르신의 건강과 장수를 기원하며, 주민들과 함께하는 자리를 꾸준히 이어가겠다”고 전했다. 

마을 소식

### 고산고-덴마크 유스스쿨 국제 교류 놀이와 요리로 하나 되다

지난 4월 3일, 고산고등학교(교장 장종택)에 특별한 손님들이 찾아왔다. 지난해 3개월간 고산고에서 인턴십을 마쳤던 덴마크 교사 'Siobhan(한국 이름: 소원)'이 자신이 일하는 덴마크 유스스쿨(Youth School)의 청소년 11명과 동료 교사 등 총 14명의 방문단과 함께 다시 고산을 찾은 것이다.

이번 방문은 작년 소원 씨가 고산 지역에서 맺은 소중한 인연에서 시작되었다. 지난 인턴십 당시 덴마크 식빵 만들기, 수공예, 환경 정책 공유 등 지역사회에서 다양한 활동을 했던 그는 한국을 잊지 않고 다시 찾았다. 고산고 학생회와 교사들은 이들을 맞이하기 위해 지난해 겨울부터 머리를 맞대고 특별한 환영 프로그램을 준비했다.

오전 9시부터 시작된 행사는 '몸과 마음을 여는 레크리에이션'으로 문을 열었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꼬리 잡기' 등 한국의 전통적인 놀이를 함께하며 처음의 어색함은 금세 웃음으로 바뀌었다. 오후에 이어진 토크쇼에서는 좋아하는 스포츠와 과목부터 K-pop, 그리고 가장 뜨거운 주제였던 PC·모바일 게임에 이르기까지 10대들만의 공통된 관심사로 대화의 꽃을 피웠다.

백미는 방과 후에 진행된 요리 교실이였다. 김인숙 교사의 도움으로 진행된 이 시간에서 두 나라 학생들은 모듬을 나누어 한국의 육전과 덴마크식 미트볼인 '프리카델라(Frikadellar)'를 함께 만들었다. 서로 서툰 솜씨를 도와가며 요리를 완성해 나간 2시간 동안 학생들은 서로의 문화를 맛보고 이해할 수 있었다.

이번 행사 준비를 담당한 고은영 교사는 "판만 깔아 주면 학생들이 스스로 연결되고 어우러지는 모습에서 교육의 힘을 느꼈다"며 "부활절 휴가를 맞아 먼 길을 와준 덴마크 친구들 덕분에 고산의 봄이 더욱 설레고 풍성했다"고 소감을 전했다.



육전을 만들어 먹으며 교감하는 학생들



지난 3일 덴마크 유스스쿨 청소년과 교사들이 고산고를 찾았다. 이들은 교류를 통해 한국 전통놀이, 토크쇼, 요리 등을 경험해보고 서로의 문화와 생각을 나눴다. 사진제공\_고산고등학교

### 양생원과 일 년 열두 달



#윤대라 #artistDERA #울랄라선녀마마

윤대라는 홍익대학교에서 동양화를 공부하고 그림 그리는 화가가 되었어요. 고양양생원, 멍멍이 견재, 꼬꼬닭 함께 좌충우돌 우당탕탕 완주살이 11년 차.

<https://www.instagram.com/artist.dera/>



## 질문이 있는 이달의 책

그레이스 M. 조 슘 | 주해연 옮김 | 글항아리 | 2023, 464쪽, 22,000원

엄마를 떠올리면 어떤 장면이 생각나는가. 누구에게나 솟아오르는 사진 같은 순간이 있을 것이다. 좋은 기억, 슬픈 기억, 이해되지 않지만 왜인지 남아 있는 기억, 엄마와 나만이 알고 있는 기억, 나도 모르는 엄마의 기억, 엄마도 모르는 엄마에 관한 나의 기억. 기억들은 분명한 이유들과 분명하지 않은 이유들이 덧붙여져 나의 일부를 구성한다.

### 전쟁 같은 맛



“전쟁 같은 맛이야.” 분유를 보며 엄마(군자)는 어느새 자신만이 기억하는 어떤 순간으로 떨어진 것처럼 보인다. 한국전쟁 한복판에서 살아남기 위해 가리지 않고 먹었던 기억이 전쟁의 맛으로 남아 있는 것이다. 이후 조현병이 발병한 엄마는 아무것도 먹으려고 하지 않고, 저자는 그런 엄마를 보며 엄마 뒤에 가리어진 한 여성의 역사를 들춰보기로 결심한다. 한국계 미국인인 이민자 2세 출신의 딸이 자신의 엄마를 박사논문 주제로 삼기로 한 것이다.

그들의 이야기는 시간의 순서를 따르지 않고 마치 엄마와 딸의 머릿속을 들여다보는 것처럼 불쑥불쑥 기억의 단편들이 제 나름의 모양을 만들어 낸다. 현재와 과거 그리고 미래까지 더듬거리며 흘러가는 이야기는 순식간에 읽는 이를 빠져들게 한다. 450쪽 정도의 분량을 앗은 자리에서 다 읽게 만드니 말이다.

모든 역사가 그러하듯, 군자라는 한 사람을 두고 가족들과 이웃들의 이해와 태도도 다르다. ‘들쭉시는’ 여동생이 못마땅한 오빠, 시어머니의 매춘 과거를 전하는 서양인 며느리, 지병이 있는 나이 많은 미군 남편, 어쩔 수 없다는 경찰과 상담기관... 오로지 딸만이 군자라는 사람을 붙들고 한 사람의 뿌리 끝까지 파내어 내려간다. 상흔이 지나간 자리에 무엇이 남아 있는지, 오로지 군자만이 기억하고 있는 순간들을 함께 느끼고 나눠 갖기 위해 딸은 기어코 군자를 혼자 내버려 두지 않는다. 자신의 글쓰기로 엄마, 군자의 과거를 바꾸어 낸다.

어쩌면 자신의 역사나 가까운 이의 깊은 일들을 물어두거나 모른 척하고 싶을지도 모르겠다. 존중이고, 사랑이고, 위로의 또 다른 형태일지도 모른다. 그렇지만 가끔은 우리가 손에 잡히지 않는, 이름 모를 누군가의 비극과 상실, 슬픔은 다 아는 것처럼 금세 끌어안지만 정작 가까운 사람의 구멍은 지나간다. 마치 없는 것처럼, 못 본 것처럼. 물론 정답은 없다. 다만 <전쟁 같은 맛>을 통해 거시사 속에 촘촘히 자리한 우리들의 미시사, 우리들의 이야기는 어떻게 마주해야 할지 생각해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 딸이 군자를 포기하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가 서로의 이야기에 다가가는 일이 자유로워질수록 우리 현대사에 자리한 깊이를 알 수 없는 시커먼 구멍들이 조금씩 채워질지도 모를 일이다. 저자가 양공주의 서사가 아닌, 군자의 생애를 연구 주제로 삼은 것처럼 말이다.

### 림보책방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고산면 고산로 70-6 2층

063) 717-7011

\* 주제를 비롯한 모든 내용은 지극히 사적인 말하기임을 밝힙니다. | 신작 중심으로 소개하지 않습니다.

## 매일설레

#82 유예성공 nn년차



배달일이 오리도 해먹고 이제 게이밍이었다면 마일리지가 왜 쌓였는지?



하지만.. 현실에서는

- ☑ 산채완로 -> 우물 방지
- ☑ 쓰레기정리 -> 말레 방지
- ☑ 오리 -> 소비 방지

축! 현상유지!  
현실을 막아하였습니다.



설레는 제주에서 그림 그리고 디자인한다.

흔티작렬 시골잡지

완두콩 구독문의

291-8448

## 비명이 되어버린 진혼곡

이종민의 다스림의 음악

(28) 윌리엄스의 [선들러 리스트] 주제곡



QR을 스캔해보세요.  
음악이 재생됩니다.

절망과 분노의 마음을 달래기 위해 야만의 전쟁 뉴스를 끄고 이차크 펠만이 연주한 영화『선들러 리스트』의 주제곡에 귀 기울여 봅니다. 잔잔한 슬픈 선율이 비명으로 들립니다. 제발 그 잔혹한 전쟁의 폭력 멈추어 달라고. 왜 21세기 대명천지에 인류사에서 가장 어두웠던 홀로코스트 같은 비극을 재현하려 하는 거냐고.

유대인 출신의 펠만에게 연주하게 한 이 주제곡은 죽음의 골짜기를 빠져나온 이들의 호느낌이자 죽어간 사람들을 향한 진혼곡입니다. 바이올린의 가냘픈 선율이 공기를 가를 때, 우리는 스크린 속 흑백의 세상에서 유일하게 색채를 가졌던 ‘붉은 코트를 입은 소녀’를 떠올립니다. 그 작은 생명이 무력하게 사라져갈 때 느꼈던 그 참혹한 상실감이 선율에 배어 있습니다. 하지만 영화가 개봉한 지 30여 년이 흐른 지금, 이 음악은 우리에게 이전과는 전혀 다른, 대단히 고통스럽고도 당혹스러운 아이러니로 다가옵니다.

이 곡의 핵심은 동유럽 유대인 전통 음악인 클레즈머(Klezmer)의 정서에 닿아 있는 특유의 떨림에 있다 할 것입니다. 바이올린은 결코 매끄럽게만 흐르지 않습니다. 마치 목이 메어 말을 잊지 못하는 노인의 음성처럼, 음과 음 사이를 잇는 비브라토에는 깊은 탄식과 절규가 서려 있습니다. 단조의 우울한 선율이 반복되면서 점차 고조될 때 우리는 그들이 겪어야 했던 부조리한 폭력과 차별의 역사를 몸으로 느끼게 됩니다.

작곡가 존 윌리엄스는 장엄한 오케스트레이션을 절제하고 바이올린이라는 단 하나의 독주 악기를 앞세움으로써 거대한 역사적 사건 속에 매몰

된 개인의 고통에 집중하게 합니다. “한 생명을 구하는 사람은 전 세계를 구하는 것이다”라는 탈무드의 격언은 이 음악의 도덕적 기둥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선들러가 자신의 재산을 털어 유대인들을 구해냈던 그 숭고한 행위는, 이 애절한 선율을 통해 인간 존엄성에 대한 최후의 보루로 기억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중동에서 들려오는 포성 아래 이 음악을 다시 듣는 일은 고통입니다. 나치에 의해 학살당하던 민족의 후예들이, 이제는 현대식 무기와 압도적인 자본력을 바탕으로 또 다른 민족을 절멸의 위기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과거 게토에 갇혀 죽어갔던 이들의 슬픔을 대변하던 이 선율은, 이제 장벽에 갇힌 채 물과 식량, 전기가 끊긴 채 죽어가는 팔레스타인 아이들과 학교에서 폭격으로 사망한 이란 여학생들의 울음소리와 겹칩니다. 이 주제곡이 상징하던 인도주의적 연민과 생명의 가치는 현재 미국과 이스라엘 정부가 자행하는 무차별적인 파괴와 민간인 살상 앞에서 그 설득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과거의 피해자라는 서사가 현재의 가해 행위를 정당화하는 방패가 될 수는 없습니다. 더욱 우리를 절망케 하는 것은 이 비극의 배후에 자리 잡은 거대한 자본의 정치 논리입니다. 미국 정계와 경제계를 장악한 유대 자본과 정치권 스캔들이 이번 전

쟁 수행을 뒷받침하는 강력한 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의 거대 금융 자본과 방위 산업체들이 얽힌 이 권력의 구조 속에서, 전쟁은 평화를 위한 수단이 아니라 자본을 증식하고 권력을 확대하는 고도로 설계된 비즈니스가 된 것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떨칠 수 없습니다.

영화 속 선들러는 자신의 전 재산을 쏟아 부어 생명을 샀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유대 자본은 천문학적인 자금을 쏟아 부어 파괴적인 무기를 생산 공급하고 있습니다. 생명을 구하기 위한 리스트는 사라지고 이제는 죽어야 할 명단을 작성하고 그 효율성을 따지는 차가운 계산기만 남았습니다. 유대인 학살의 아픔을 예술로 승화시키고 전 세계의 눈물을 닦아주던 그들의 문화적 영향력과 자본력이, 이제는 전쟁의 참상을 가리고 여론을 호도하는 수단으로 쓰이고 있다는 점은 뼈아픈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습니다.

전쟁은 어떤 명분으로도 미화될 수 없습니다. 특히 과거의 상처를 훈장처럼 달고 타인에게 더 큰 상처를 입히는 행위는 인류사에 기록될 또 다른 범죄일 뿐입니다. 이제 광기를 멈추고 자신들이 전 세계에 호소했던 그 인본주의의 가치로 돌아 가야 합니다.

바이올린의 선율이 더 이상 비명이 아니라 진정한 화해의 노래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선들러가 남긴 마지막 눈물, “더 많은 사람을 구할 수 있었는데”라는 그 후회 섞인 고백이 오늘날의 지도자들에게도 준엄한 심판의 목소리로 들리길 바랍니다. 이 음악이 이 희대의 폭군들 광기를 진정시켜줬으면 하는 마음 간절하기만 합니다.



이종민은 40여 년간 지켜온 대학 강단에서 물러나 고향 완주에서 인문학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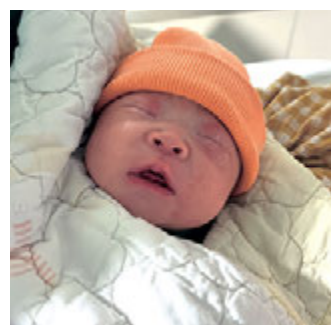
### 마을 소식

#### 완주로 귀촌한 김기수·심아람 부부 득녀

4월 13일 저녁 6시30분, 김기수·심아람 부부가 3.2kg의 건강한 딸을 품에 안았다. 태명은 ‘딸기’로, 두 아들에 이은 막내딸이다. 기수 씨의 장모님이 돌이 깔린 맑은 계곡에서 조개를 줍는 태몽을 꿴다고 전해진다.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 9기를 수료한 부부는 이후에도

‘까꿍’과 ‘봄날’이라는 별명으로 다양한 활동을 하며 완주에 뿌리를 내리고 있다. 공동체적 삶과 아이들 교육을 찾아 완주를 택한 부부에게 아이의 탄생은 삶을 더욱 풍성하게 해줄 선물이 됐다.

부부는 “딱히 바라는 것은 없다. 항상 밝고 건강하게 자라 주면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소박하고 따뜻한 바람을 전했다.



## 이 와중에 봄날은 왔다

농/촌/별/곡



차 남 호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습하면서 벌어진 중동전쟁이 이제 한 달을 넘겼다. 저녁뉴스 첫머리는 아직도 이 전쟁 소식으로 채워지고 있다. 2주간의 임시휴전과 함께 종전협정에 들어갔지만 최근 협상이 깨지면서 다시 전운이 감돌고 있는 상황이다.

그사이 술한 인명이 희생되고 각종 산업시설은 물론 민간시설까지 파괴되면서 전쟁 피해는 계속 불어나고 있다는 소식이다. 나아가 정유·에너지 관련 설비 파괴와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석유공급에 차질을 빚으면서 전쟁 여파는 전 세계로 퍼져가는 모양새다. 이에 따라 기름값 폭등과 비닐 농자재를 비롯한 석유화학제품 공급부족, 차량운행 5부제 등으로 피해는 어느새 우리의 삶 속으로 다가왔다.

하지만 어찌랴. 전장은 머나먼 저곳이고, 전쟁을 끝내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극히 제한적이다. 트럼프의 정신 나간 행패에 분통을 터트리면서 어쨌거나 하루빨리 전쟁이 끝나기를 바라는 마음. 사실 그것 말고 또 뭐가 있겠나 싶다.

이 와중에 봄날은 왔고, 사뿐사뿐 고운 걸음을 내딛느라 한창이다. 전쟁의 포화가 터질 즈음 망울이 맺혔던 매화는 피었다가 낙화한 지 오래고, 만개했던 벚꽃마저 하늘하늘 꽃비를 뿌리고 있다. 그 아래 빨갭게 아롱진 명자꽃과 노랗게 몽개진 개나리는 아직 꽃꽂이 버티고 있다. 아, 이제보니 복사꽃, 배꽃이 막 피어나는구나. 보름달이라도 떠오르면 '이화에 월백하고 은한이 삼경인' 봄밤의 정취에 흠뻑 빠져들겠다.

뒷산 숲에도 봄은 흐드러졌다. 산목련, 산벚꽃, 산개나리, 산딸기... '산'자 붙은 꽃들은 이제 끝물이고 산자락에 야트막이 피어오를 차례. 제비꽃 가녀린 자태에 숨이 멎을 때쯤, 허물어진 무덤가에 말없이 고개 숙인 할미꽃은 지나온 삶을 돌아보게 한다. 노란 별을 매단 양중맞은 양지꽃, 꽃말(바람난 여인)처럼 간드러진 얼레지, 푸른 요정이 떠오르는 오밀조밀 현호색... 봄날 산길을 걸을 때는 발밑을 조심하라. 거기 섬세하고 아기자기한 세계가 깔려 있나니.

눈을 들어 바라보면 연두색 잔치. 겨우내 메말랐던 가지마다 새록새록 새순이 돋아나니 '자연의

신비'에 절로 빠져들게 된다. 나무란 나무는 모두 그렇게 생명을 이어갈 준비를 하는 것이겠다. 아 빨싸! 게 중에는 제 몫을 하기도 전에 인간에게도 룩당하는 순도 있으니 두릅이 첫손에 꼽힌다. 이맘때면 숲길을 걷다가 눈에 띄는 두릅순을 따다가 살짝 데쳐 초장에 찍어 씹쌀하고 향긋한 호사를 누리게 된다. 욕심이란 끝이 없는 법이라, 내친김에 벗들과 더불어 돌미나리, 쑥, 머위순... 갖은 봄나물 모듬전에 막걸리 잔 기울이는 맛은 또 어떻고. 한 순배, 두 순배 얼큰해지면 더 내친김에 봄나들이 날짜를 잡게 마련이다.

그렇지. 봄날은 울안에만, 뒷산에만 있는 게 아니렸다. 들머리길 활짝 핀 벚꽃 터널 지나 달은 고즈넉한 산사에도 봄기운이 가득하다. 울금바위 시원한 기운 받고 근처 산채식당에 차려진 갖은 봄나물을 대하니 눈앞이 어질어질해온다. 하지만 길은 또 이어진다.

이번엔 봄바다. 해변도로 따라 살랑대는 바람은 싱그럽고 바다는 질푸르다. 적벽강-채석강 갯바위에 하얀 파도 부서지고, 수성당 언저리 드넓은 유채꽃밭은 샛노랗게 물들었다. 해 걸음, 수평선 붉게 물들이던 격포의 노을빛이 지금도 아련하다. 그렇게 봄날은 왔고, 또 가고 있다. 하지만 머지않았다. 이 봄날의 끝자리에는 '농사철'이 딱 자리 잡고 있을 테니. 그래서 옛 시인은 '찬란한 슬픔의 봄'을 노래했겠지. /비봉 염암마을

### 마을 소식

## 시즈오카 산악회와 함께하는 한일 교류 산행

### 4월 21일 고산 안수산 탐방

완주 한일문화교류는 일본 시즈오카 산악회와 함께하는 한일 교류 산행을 오는 4월 21일 진행한다. 산행은 오전 9시 고산면 원성재길 일원에서 시작되며 점심으로 김밥과 라면이 제공된다. 식사 후에는 말차 체험도 이어질 예정이다. 산행뿐 아니라 말차 체험만 참여하는 것도 가능하다.

시즈오카 산악회는 약 220명의 회원으로 구성된 단체로 이번에는 한국을 좋아하는 회원 12명이 완주를 찾는다. 이들은 15년 전부터 매년 한국의 산을 방문하며 교류를 이어오고 있으며 3년 전

에는 비봉 천호산에서 교류 산행과 함께 완주에서 말차 체험을 진행한 바 있다. 특히 녹차로 유명한 시즈오카 지역 특성상 이번 방문단에는 말차 전문가도 포함돼 있어 더욱 풍성한 교류가 기대된다. 나카무라 완주 한일문화교류 관계자는 "한국 주민들과 함께 산을 오르며 자연스럽게 교류하는 시간을 갖고 싶다"며 많은 참여를 당부했다. 재료 준비를 위해 참석 희망자는 사전 신청이 필요하다.

### [참여 문의]

- 호호 010-6691-1165(안수산 등반공동체)
- 나카무라 010-9707-6462(완주 한일문화교류)



완주마을이야기 완두콩  
완주 CB공동체

- 발 행 미디어공동체완두콩협동조합
- 발 행 인 이용규
- 주 소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고산면 고산로 100
- 대 표 전 화 063-291-8448 • 팩 스 063-261-8448
- 홈 페 이 지 www.wandookong.kr
- 취 재 · 글 윤하나, 성다연
- 편 집 장혜영, 이운영

정기간행물등록번호 완주.라00002 구독료 월 5,000원 후원 월 1만 원  
 독자기고 및 제보 toktok1942@hanmail.net

